

수산은 전남, 해양·물류는 부산에 집중육성

해수부 업무보고...전남도 수산정책 수용 항만정책 경남 편중...광양항 활성화 찬물

해양수산부가 양식업 조성 등 전남도의 수산정책을 대부분 역점 사업으로 받아들이며 '수산 1번지' 전남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제적 부가까지 창출 효과가 큰 해양·물류분야 사업 계획은 대부분 경남에 치우쳐 전남도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 계획'을 대

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첫 업무 계획이어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은 크게 수산 분야는 전남, 항만·물류는 부산·경남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짜였다. 수산 비중이 큰 전남으로서는 관련 예산을 따낼 수 있어 반길만하지만, 항만·물류 정책이 경남에 편중돼 광양항·목포항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가 밝힌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는 대부분 전남의 역점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해수부는 오는 2015년까지 400ha에 달하는 양식업 7개소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양식업은 전남도가 아이디어를 낸 프로젝트이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진도에 전북 대규모 생산단지를 건립하는 일종의 대형 양식장을 말한다.

또 전남도 역점사업인 양식종자 연구와 현대화, 해외 양식, 수산유통구조 개선, 천일염 육성 등의 수산정책도 해수부의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슈퍼갑과 다시마 종자 등을

개발하는 등 양식종자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양식을 시작했으며 품목별 수산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해수부는 부산항을 한적 허브로, 울산항을 오일 허브로 육성하는 항만 정책을 발표해 '경남 편중 항만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항의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초대형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오는 2016년까지 항로 수심을 현 15m에서 17m로 준설할 계획이다. 또 연간 10만 TEU 이상을 기록한 선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으로 부산항의 환적 비율을 현재 47.7%에서 내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조선·관광 등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광양과 여수, 목포를 비롯한 전남과 부산·경남지역 항만도시의 뜨거운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과 항만·물류를 지역으로 나눠 육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양경제특별구역도 세계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큰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 이틀째인 21일 관람객들이 철쭉이 만개한 박람회장을 돌며 '봄의 정원'을 만끽하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개막 이틀만에 8만5000여명을 유치하면서 초반 관람객 유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이틀만에 8만여명 관람...편의시설 부족 불편

지난 20일 공식 개막한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10월20일까지)가 이틀만에 8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인기몰이에 나섰다.

반면, 일부 전시공간의 식물이 시들거나 정원해설사가 턱없이 부족해 관람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개장식이 열린 20일 오전 9시, '지의 정원' 순천만 일대에 조성된 박람회장의 문이 열리자 30여분 전부터 길게 줄을 섰던 1000여명의 관람객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람회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새벽부터 내린 비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개장 1시간 만에 1

만여명이 몰리는 등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은 컸다.

특히 경상도와 경기도 등 타지 단체 관람객이 줄을 잇고, 느긋한 휴일을 만끽하려는 가족이 몰리는 등 비교적 성공적인 개막 첫 주를 맞았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21일 오후 6

시 현재 누적 관람객은 8만5000여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나무와 꽃을 개막 직전에 식재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식당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관람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2면에 계속>

/순천=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문순태 칼럼·한승원 칼럼
독자 여러분 찾아갑니다

창사 61주년 회갑의 해를 맞은 광주일보에 '문순태칼럼'과 '한승원칼럼'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언론인으로 소설가로 남도의 정서를 형상화해왔던 문순태 작가와 미학적 문학세계를 구축해왔던 한승원 작가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춘 두 작가가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문순태

한승원

▲담양 출생
▲한국문학 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로 등단
▲이상문학상, 오산문학상
▲전 언론인·광주대 문학과 교수
▲현 담양 생오지문에창작총장
▲주요작품 '정소리' '타오르는 강'

▲장흥 출생
▲대한일보에 '목선'으로 등단
▲대한민국문학상
▲이상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조선대 국문과 초빙교수
▲주요작품 '동학제' '아재이제바라이제' '해변의 길손'

光州日報社

姜·李 “이달까지 반드시 단일화 실현”

민주 전대 합동연설회

21일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 열린 5·4 전당대회에서는 범주류 후보 단일화가 최대 화두였다. 광주 출신인 범주류의 강기정·이용섭 후보는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내세워 이달 내 단일화 성사를 약속하며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후보의 대세론 차단을 시도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헤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강기정 후보는 “저와 이 후보는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위해

경선에 나섰다”며 “새로운 민주당을 재탄생시키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달까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도 “대선 패배에 따른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필요하다”며 “반드시 아름다운 단일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와 전남 합동연설회에는 1000여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당 대표 후보의 연설이 끝난 뒤 대부분 자리를 뜨면서 최고위원 후보 연설회는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최원일기자icki@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ROCKEFELLER GOLF Multi Golf Membership Card

2013년 실속 있는 골프의 시작!! 멀티골프 + R카드

제휴 골프장 5곳에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GOLD LAKE COUNTRY CLUB

MUDEUNG SAN COUNTRY CLUB

Acro Country Club

푸른솔골프클럽 PURPLE SOL GOLF CLUB

HWASUN COUNTRY CLUB

멀티골프 + R카드 제시하면
최대 50% 현장 즉시 할인!!!

입회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질권설정으로 안정성 확보!!

룩펠러멀티골프 + R카드 부가서비스

룩펠러멤버십에서는 제공하는 특별한 부킹 서비스 제공
회원 전용 예약실 운영

지정 골프용품상에서 골프 용품 30% 할인 최대8000원

호텔&리조트 골프패키지 지정 호텔 리조트 골프패키지 우대가 적용

“오늘” 신청부터 발급까지...
“내일” 실속골프에 시작합니다.

안전한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신뢰와 안전성을 더 했습니다.

입회금 질권 설정으로 안정성 강화!!
소중한 보증금인 만큼 더 확실한 대안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입회1년 후 증도해지 및 명의변경가능!!
쉬운 자신의 현금화, 이 또한 룩펠러멀티골프멤버십에 자신감입니다.

각 제휴 골프장별 5년 이용혜택 보장!!
제휴골프장별 개역 체점이 되어 더 신뢰 할 수 있습니다.

GOLFZON VISION 광주지역제휴스크린골프 3곳 30%할인 (광장골프존-서구.리얼골프존-광산구.자이언트골프존-북구)

한국재무설계 KRIA FINANCIAL PLANNING

중소기업,병원원VIP재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이입회 신청 문의 | 룩펠러멀티골프멤버십 062) 351-0095
룩펠러회원권거래소(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05 LK메디피아B/D 3층 http://www.multigolf.co.kr